

중국, '사담 후세인'도 상표출원 되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중국에서 상표로 등장할지도 모른다. 지난 1월 12일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운주시에 위치한 삼목상표사무소가 최근 사담 후세인의 얼굴을 변형한 디자인의 상표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목상표사무소는 이미 2천여개의 상표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최초의 상표 슈퍼마켓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상표권 출원대상인 사담 후세인의 얼굴형상은 실물사진을 기초로 했으며 일반 중동인의 얼굴을 모티브로 하여 초상권 등의 법적분류 가능성을 피했다고 KOTRA는 설명했다. 실물사진이나 유사사진을 상표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목상표사무소는 '사담 후세인' 상표는 높은 광고효과를 지니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목상표사무소 관계자는 '만일 상표권 등록이 가능해지면 상표권의 이전가격은 사담 후세인 체포전의 현상금 수준인 2천5백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인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현행 법상 '사담 후세인' 상표권 신청을 일단 접수했으나 과거 '르윈스키'에 대한 상표권 등록신청이 불발에 그쳐 이번에도 출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목상표사무소도 과거에 '빈 라덴' 상표권을 같은 방법으로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IBM, 특허권 5백건 무료공개 결정

세계 최대 특허권 보유 업체인 IBM은 리눅스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업들에 소프트웨어 특허권 5백건을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지난 1월 11일 보도했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특허사용료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IBM의 특허권 무료 공개 방침은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IBM은 지난해에만 3천2백48건의 특허를 획득했으며, 한 해 동안 기업들로부터 벌어들인 특허사용료로는 10억 달러에 달한다. IBM의 이번 결정은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기적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IBM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특허권 공개 방침은 이러한 전략의 초기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존 켈리 IBM 기술 및 지적재산권 담당 선임부사장은 '이번 특허권 무료 공개 결정은 지적재산권 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뮤얼 팔미사노 최고경영자(CEO)도 특허권 공개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많은 기술표준 공개와 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손자에게 신겨 보았다. 그것은 정말 신기했다. 미끄러지지도 않고, 손자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다. 마쓰이는 손자에게 만들어 준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양말을 만들어 주었다.

양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신발과 거의 비슷한 모양이었다. 양말의 발목 부분을 잘라 내고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편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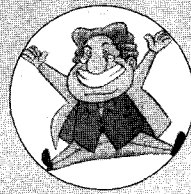
'어머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주 따뜻하고 편리한 게 참 좋네요.'
아들은 어머니가 만든 양말을 신어보며 신기하게 생각했다. 순간 마쓰이의 아들은 특허출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음날 서둘러서 특허출원을 마쳤다.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이 실내화 같은 양말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분명히 인기가 있을거야.'

마쓰이의 도움을 얻어 온 가족이 실내화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다. 예상했던 대로 실내화는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실내화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다. 실내화가 발명된 당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마쓰이가 남긴 한 마디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발명인들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있다.

'나는 발명과 디자인이 뭔지도 몰라요. 다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가족에 대한 나의 사랑뿐이죠. 사랑하는 내 손자를 위해, 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무언가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디자인하고 만든 것이 있다면 그건 오직 사랑일뿐이죠.'



민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출원·특허등록 하는 방법 ③

어떤 고안이 실용신안과 의장을 받을 수 있는가?

감수/오혜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이번 시간엔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는지?

예! 한미어린 훌륭한 발명이 반쯤은 있는 거지요

그럼 오늘은 어떤 고안이 실용신안과 의장을 받을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지

전에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편리하고 아름다운 것들이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새로운 면서도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실용신안 등록을 위하여

여기에서 '형상'이란 외형적 형태로서 연필의 육각형, 자동차의 유선형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조'란 형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구성된 것으로서 각종 기계장치, 건축물의 적층판재 등이 이에 속하는 고안이라 할 수 있고

'조합'이란 그 이상의 독립된 물품을 상호기능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물품을 구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한데 그 예로 지우개 달린 연필, 손톱깎이를 갖춘 손톱깎이 등이 있다.

나를 생각해

나를 생각해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훈장 등 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또는 표기문란

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의장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의장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이유

나를 생각해

나를 생각해

등록요건이란 거래대상이 되는 물품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및 창작성을 지닌 의장을 말한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의장을 구체적으로 구성 하는 것으로 다량생산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100% 수작업 대량생산 불가능 ⇒ 등록요건 X

나를 생각해

나를 생각해

신규성이란 출원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거나 국내외에서 제3자에 의해 공개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장 및 그 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창작성이란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을 말한다.

위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라도 다른 사항에 해당하는 의장은 등록 받을 수 없다.

나를 생각해

나를 생각해

국가, 국장 등 국제기구의 문지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현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것.

박사님, 그럼 이런건 어떤가요? 뽕 허리에 바퀴벌레 인형이요~! (실물과 똑같이~)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의장도 안돼!

나를 생각해

나를 생각해